

## 참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 - 전국적인 기온 상승으로 참진드기 활동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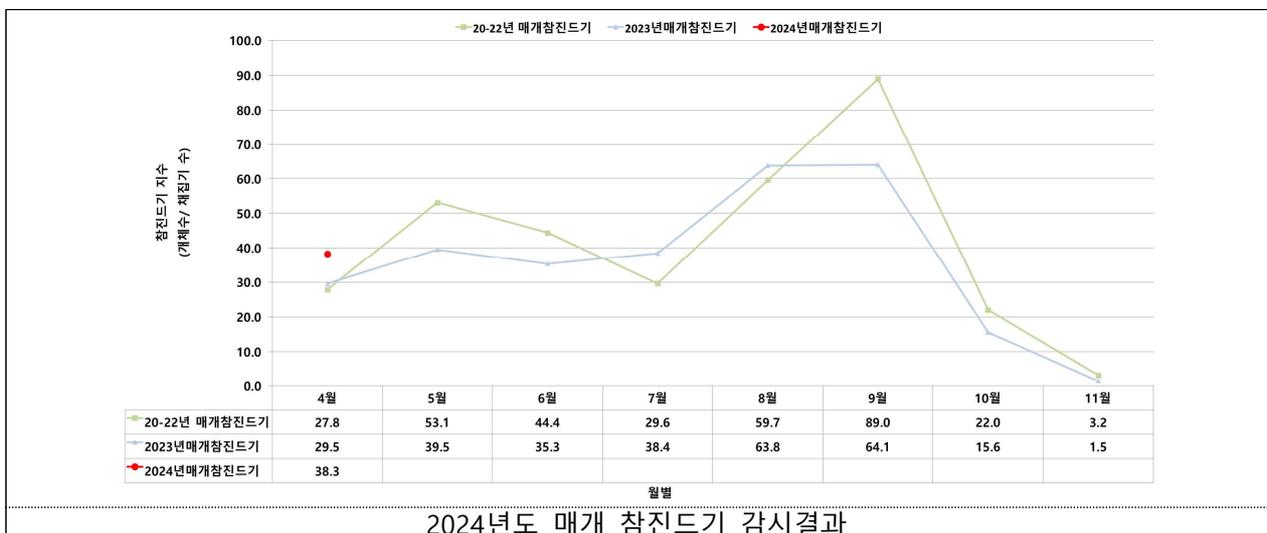
- 4월 평균기온 증가에 따라 참진드기 지수 평년 대비 37.5% 증가
-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기피제 사용 등) 준수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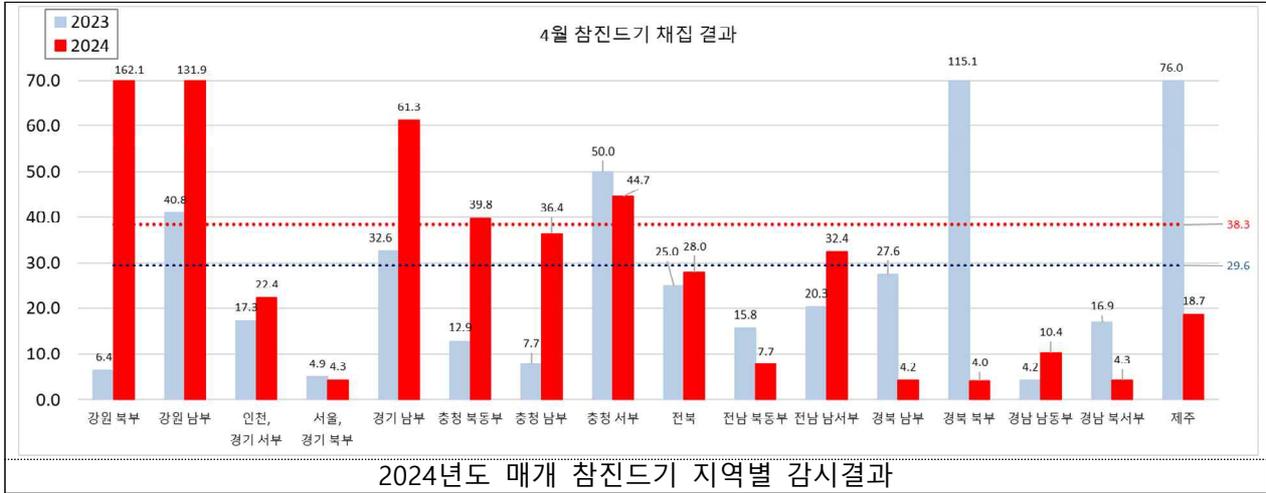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년 4월 대비 참진드기 발생이 증가하였고,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며 진드기 물림 주의를 당부하였다.

참진드기는 바이러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진드기매개뇌염), 세균(라임병), 리케치아(큐열) 등 다양한 병원체를 전파하는 감염병 매개체로, 특히 국내에서는 SFTS, 라임병 등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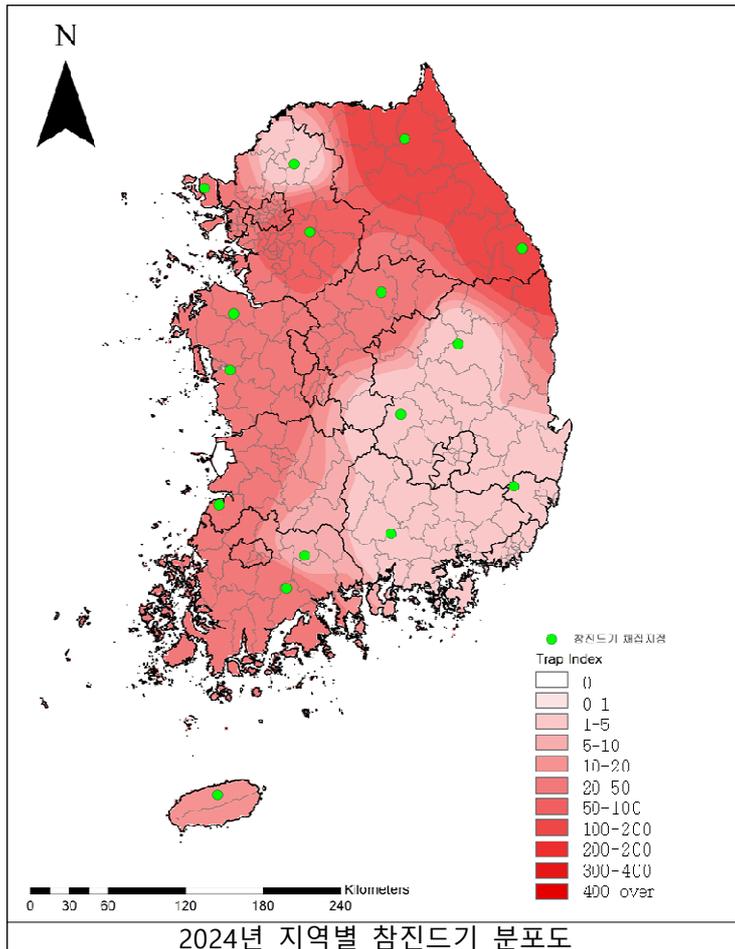
4월부터 시작한 참진드기 감시사업(국방부 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붙임 1 참고)) 운영 결과, 참진드기 지수\*가 38.3으로 평년(20년~22년) 대비 37.5%, 전년 대비 29.6% 증가하였다(붙임 2 참고).

\* 참진드기 지수: 전체 참진드기 채집개체수/채집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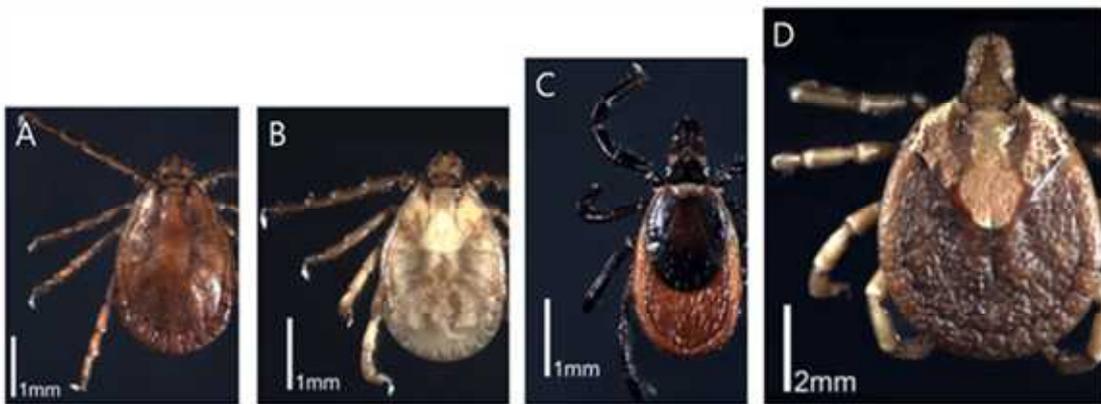


참진드기 조사 시기인 4월의 평균기온이 작년 대비 1.8℃ 증가한 것이 참진드기 발생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주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참진드기 지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지역에서의 기온 증가폭은 2.0℃로 제주도와 경상도(1.6℃)보다 높았다.





<발생단계별 참진드기 모습>



<SFTSV 매개 참진드기>

(A:작은소피참진드기, B:개피참진드기, C:일본참진드기, D:몽뚝참진드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과 야외활동 후에는 몸을 씻으며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물고 있는 구기 부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1. 2024년 SFTS 매개 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
  2. 2024년 SFTS 매개 참진드기 발생 현황
  3. SFTS 매개 참진드기 관련 질의응답(Q&A)

담당 부서 <총괄>	감염병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희일 (043-719-8560)
		담당자	연구사	김현우 (043-719-8565)
담당 부서 <협조>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종희 (043-719-7160)
		담당자	연구사	황지혜 (043-719-7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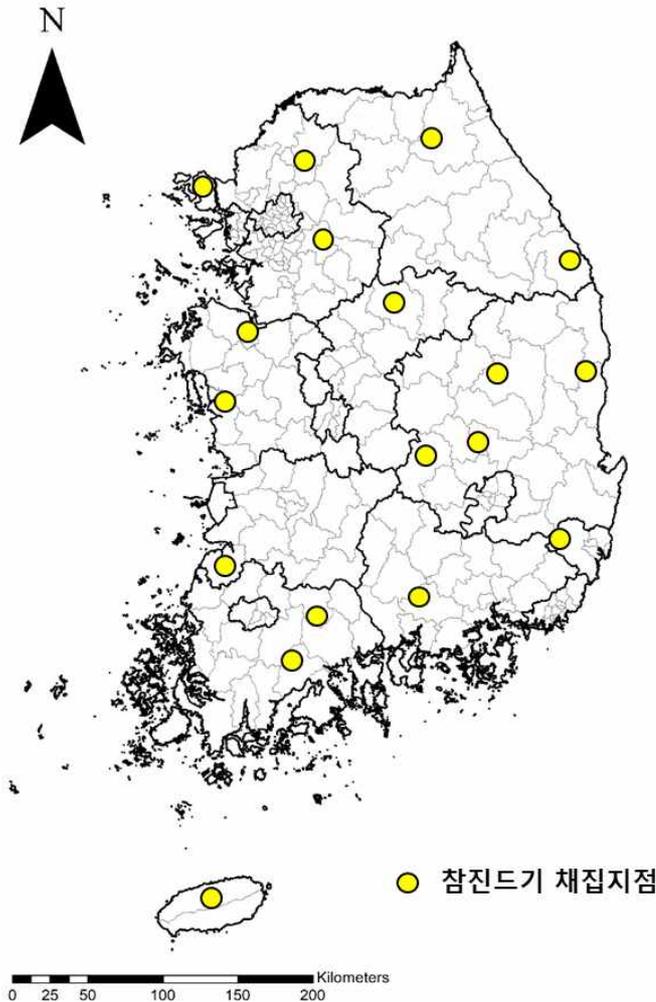


□ '24년도 매개 참진드기 감시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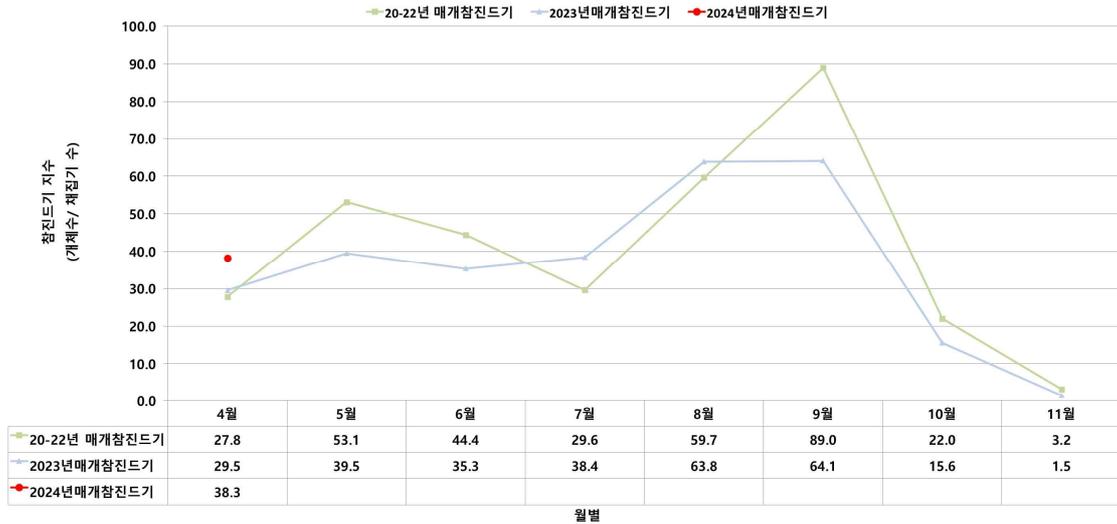
○ 18개 지역(4개 환경\*)에서 매월 참진드기 감시 수행

기관명	질병관리청	국방부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역	충주시	고창군	군위	영덕	인제군	보성군
기관명	인천대학교	삼육대학교	연세대학교		충남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지역	강화군	포천시	삼척시	광주시	보령시	당진시
기관명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상주)	전남대학교		고신대학교	제주대학교
지역	김천시	안동시	곡성군	진주시	울주군	제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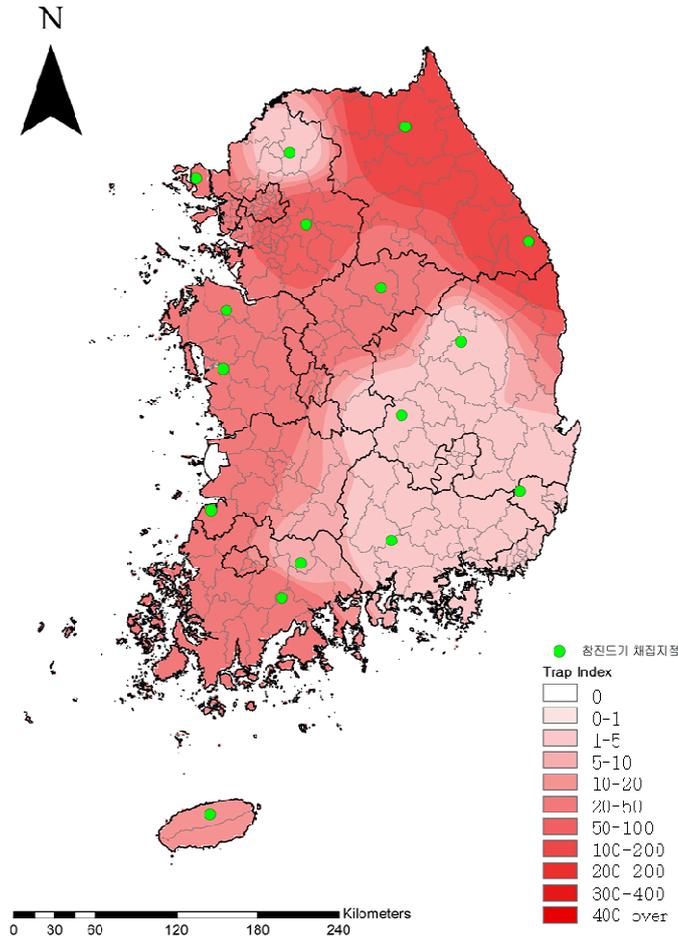
\* 사람들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채집·분석 수행 : 무덤, 잡목림, 산길, 초지



□ '24년도 매개 참진드기 감시결과



□ '24년도 지역별 참진드기 분포도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진드기는 주로 어디서 물리나요?**

-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부착한 후 흡혈을 합니다. 멀리 날아가 달라붙지는 않으므로, 진드기가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만 접촉하게 되고 물릴 수 있습니다.

**Q2. 진드기에 물렸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요?**

-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에만 SFTS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요?**

- 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사스(SARS)와 같은 질환과는 전파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밀접접촉자에서 SFTS가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었을지 검사해도 될까요?**

- 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해도 감염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합니다. 이후 15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합니다. 풀숲이나 덩굴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